

金北日報



△ 지난 2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전북MICE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향' 포럼

관광자원 풍부하 전북, 인프라·시설 지원 절실

‘MICE 산업 육성…’ 주제 국립무형유산원서 포럼

전북에서 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수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주최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전북MICE 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향'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강동한 경기관광공사 경기MICE부로 단장은 “전북은 폭넓은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이 있지만 권역별 마이스 관련 인프라와 전략이 부재하다”면서 “전시와 컨벤션 시설 등도 부족해 지원이 필요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강 단장은 “전북은 자치단체에 마이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마이스얼라이언스(호텔·전시·관광업계 등 단체 모임)와 함께 마이스 관련 콘텐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들과 함께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에는 군산새만금센터, 한옥마을, 무주 태권도센터 등 마이스 산업을 구현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강 단장은 '전라북도 마이스 유치 민관 협력과 콘텐츠가 답이다' 발제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마이스 협의회 구축, 전라북도 내 대학 마이스 관련 학과 신설, 전북연구원 내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은성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도 'MICE산업과 전북이 나아갈 길' 발제에서 “전북은 시도별 마이스산업 개최현황에서 최하위수준이다”면서 “전북만의 마이스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내 마이스 북학지구 육성, 전북의 국제회의 도시 지정, 중앙정부 마이스 정책과의 연결, 동반자 참여 프로그램 통한 지역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배호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 팀장, 박명용 전북도 관광총괄과장, 김명성 전주 KBS 방송문화사업국장, 김현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단장, 장영훈 (주)엠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나가야 할 길

보다 많은 관광예산 확보, 시·군 연계 장기계획 수립, 전문직 공무원 양성 필요

민선 7기 새로운 지방 행정과 의회가 시작됐다. 우리 전라북도민들 역시 희망찬 기대와 함께 더불어 잘살기 위한 지방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6기 민선 행정을 돌이켜 봤을 때 반절의 성공과 반절의 실망을 느낀 우리는 향후 4년이 희망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류인평 교수

먼저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새로운 시간여행 메카가 된 군산 근대거리,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글로벌 축제가 된 김제 지평선 축제 등 그동안 전라북도 관광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국내 대표적인 관광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관광 정책으로 문화 ICT융합, 여행 체험 산업 활성화 등을 비롯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관광벤처 육성, 길 문화반 조성, 고군산 군도 명품 섬 개발 등 취지는 좋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관광예산부분 확보이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 전라북도 관광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2018년 정부 관광부분 재정 집행 규모 총 1조 3989억원 규모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으나 국내관광활성화 사업 및 특색있는 지역 관광육성 발전,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더불어 꾸려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족 회계로 타 지역 사업 등은 이미 사업이 많이 확보 되었지만 우리 전라북도도는 지족회계로 전체 예산 계획의 8.9%, 관광기금으로는 0.4% 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관광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관광전문직 공무원은 매우 극소수이며 이들이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광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관광은 자판기처럼 투입과 산출이 동시에 되는 분야가 아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 수행해야함에도 조급한 마음에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원하다 보니 많은 관광정책들이 실패하고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전문직 분야를 확대해서 정부 정책수립과 예산 및 개발계획이 어울려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각 시군 별로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지역 관점에서 보는 매우 편협적인 관광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관광은 점단위 관광이 아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선단위 관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특색을 갖춰 면단위 입체형 관광으로 되고 있음은 이미 선진국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익산만 연계 되 있을 뿐 나머지 10개 시군은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다. 전라북도가 관광객들에게 우리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단위를 연계시키는 연계 관광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전라북도가 이제는 변방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관광 중심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농어촌빅텐트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이사회 및 월례회 개최

전라북도 MICE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활동 펼쳐

(사)전북MICE발전협의회(회장 김기정)는 6월8일, 홍록기파티하우스(전주점)에서 상반기 이사회 및 정기 월례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마이스 관련 활동을 벌이기 위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홈페이지 제작, 전북마이스 뉴스레터 정기발행, 국제청년 관광서포터즈 포럼 후원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임원으로는 김기정 회장(NH농협 태평동 지점장), 장영훈 부회장(엠커뮤니케이션 대표), 류인평 이사(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유정(한국원예학회 사무국장), 신창열 이사(한국이벤트경영연구소 소장), 오민권(한국정보통계 대표), 김성운 감사(법무법인 최상 변호사)이다.



△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이사회 회의

한편 6월 월례회 모임에서는 협의회 출범 후 6개월 동안 전개한 다양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확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진해 대표(국제교류지원센터), 노명중 부총지배인(군산 에이본호텔), 김덕환 박사(한독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추진위원)가 신규회원으로 소개되면서 총 51명으로 회원수가 늘어났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100-120명으로 회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6월 정례회 모임

이러한 민간주도의 마이스 활동에 힘입어 전북도는 전라북도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작년 11월 17일에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기구로 전북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장영훈 부회장, 류인평 이사, 강순화 교수(우석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전북지역의 관광 및 마이스산업 진흥을 목표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국내의 마이스 유치활동, 정책건의와 제안, 권역별 마이스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작년 11월24일 출범하였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뉴스레터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 NEWSLETTER

2018. 10. VOL.2

발행인 김기정 | 편집인 하순형, 박유정

2018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소식

JBM GOODNEWS

전북MICE산업육성과 활성화 방향 포럼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주최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전북MICE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향'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강동한 경기관광공사 경기MICE부로 단장은 “전북은 폭넓은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이 있지만 권역별 마이스 관련 인프라와 전략이 부재하다”면서 “전북은 자치단체에 마이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마이스얼라이언스(호텔·전시·관광업계 등 단체 모임)와 함께 마이스 관련 콘텐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들과 함께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성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도 'MICE산업과 전북이 나아갈 길' 발제에서 “전북은 시도별 마이스산업 개최현황에서 최하위수준이다”면서 “전북만의 마이스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5명의 전문가 김배호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 팀장, 박명용 전북도 관광총괄과장, 김명성 전주 KBS 방송문화사업국장, 김현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단장, 장영훈 (주)엠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패널토론과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8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MOU협약



충북MICE MOU협약 | 2018.03.23



마이스월드 MOU협약 | 2018.05.11

1월 신년 하례회



1월 12일 (사)전북MICE발전협의회에서 임원 및 회원분들과 신년 하례회 진행

3월 포럼



3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전북MICE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한 전북MICE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향 포럼이 열렸다.

5월, 6월 월례회



5월11일, 6월8일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열리는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월례회 진행 및 신규회원 소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관광협의체 발대식

국내 관광지육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전국 10개 권역별로 특화된 테마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전주대학교, 류인평교수)추진

- 전라북도 시간여행101 :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선정
- 선사시대 고인돌 -고창
 - 고려 청자 -부안, 조선시대 태조어진과 한옥마을 -전주
 - 근대거리 -군산 연대별 관광지

시간여행권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내 관광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광발전 욕구를 하나로 모으고 발현할 수 있는 시간여행권역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설립을 통해 시간여행 권역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권역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시간여행 DMO운영을 통하여 시간여행권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도록 유도하므로써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체를 구성하였습니다.

- 일 시: 2018. 10. 5.(금) 16:00~
- 장 소: 전주 JS호텔 JS홀
- 주 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참가인원: 약 100명
- 참여기관 및 단체
 - 전라북도청,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한국지역개발연구원
 - 전통문화연구소, 전북MICE발전협의회, 문화해설사협회, 한국관광공사
 - 전북지사, 관광협회, TPO, 제이스타투어, 원광여행사, M커뮤니케이션
 - 한성호텔, 풍남호텔, 르윈호텔, 전주라마다호텔, JS호텔, VIP여행사, 레인보우, 노란풍선
- 주 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관광협의회 운영 발대식
 - 1부: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관광협의회 발대식
 - 2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발전 사례발표

시간여행 101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포럼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통해 도내 관광자원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스토리를 연계하는 권역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민·관·산·학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권역 상생발전 방향 모색 하고자 민간단체 전문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협의체 구축을 통해 시간여행권역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 일 시: 2018. 11. 09.(금) ~ 11. 10.(토)
- 장 소: 그랜드 힐스튼 호텔
- 주 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 관: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 참가인원: 각계 전문가 200명 (도·지자체, 민간단체, 지역관광조직,산업체, 학계, 언론사)
- 패널인원: 9명 (좌장1명, 주제발표발제4명, 패널자4명)
- 주요일정
 - 1일차: 개회식, 기조연설, 주제발표발제 및 토론
 - 2일차: 시간여행권역 포스트 투어
- 포스트투어
 - 일사: 2018. 11. 10(토)
 - 장소: 군산, 고창, 부안, 전주 일원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행사 일정]

-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관광협의체 발대식 및 10월 월례회의 - 10월 5일(금)
- 시간여행 101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 - 11월 9일(금)

전북MICE아카데미 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

- 사업목적**
- MICE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체계화된 MICE 교육 프로그램 실시
- MICE 아카데미사업은 서비스, 정보, 지식 기반 중심의 창조경제 시대로의 변화에 맞추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인 MICE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북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 창조 전문 인력을 육성을 목적으로 컨벤션, 전시, 이벤트 각각의 고유 영역적 특성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및 운영, 창조 및 IT 분야에 대한 교육을 조화시켜 다양한 분야의 청년취업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문교육을 통한 MICE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질적인 청년 취업 연계를 통하여 MICE 업계의 지속적 고용창출과 실무자 서비스 기본 교양 및 서비스 인증사업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추후 현장운영인력 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전북 유니크메뉴 발굴 및 육성

- 유니크 메뉴의 정의**
- 유니크메뉴란 “MICE 개최도시의 독특한 매력 (Unique Attractiveness)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실내시설과 외부(자연) 환경을 모두 포괄함” - 일반적으로는 그 도시의 전통성을 나타내는 역사문화유적이나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육성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MICE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라북도 마이스시설 거점에 따른 개최장소 및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회의 기능만을 갖춘 개최장소(Venue)보다는 관광, 문화 등이 함께 제공되고, 접근성도 용이한 장소의 활용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북만의 대표적 유니크메뉴 시설 발굴 및 활용 방안모색과 지역별 유니크메뉴의 연계성, 유니크메뉴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축하여 MICE개최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전북 MICE 홍보 (뉴스레터/홍보책자)

- 사업목적 및 내용**
- 전라북도 MICE산업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성과 홍보 등 MICE산업의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취재 기사, 촬영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급 콘텐츠 기획·제작과 배포로 MICE산업 뉴스레터 소식지 전문화
- 전북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행사 및 관광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국내외 참가자 대상 MICE 홍보물, MICE Alliance 관련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북의 핵심 관광·MICE 자원을 소개하고자 함
- MICE산업 관련 소식지 발간으로 정보 및 지식 전달
 - MICE산업의 주요 정책 및 시행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MICE 산업발전을 위한 MICE분야의 전문 업계와 협력관계 구축
 - 전북 MICE 종합 지원 안내 브로셔 제작
 - 전북 MICE Alliance 관련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발행부수
- ① 뉴스레터 - 연간 4회/ 각 1,000부
 - ② 홍보책자(브로슈어, 리플릿, MICE 홍보물 등)

•특별자문위원

김덕환 박사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주호 삼남해외관광여행사 대표	이수정 군산테디베어박물관 실장
	이만세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교수

[회원사 가입 관련 문의]

문의처 :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사무국 |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중화산동2가) | T.063)715-0880 E.jbm7150880@naver.com